

# 아동의 자아존중감, 학업스트레스, 학교적응과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유경훈<sup>1</sup>, 손유선<sup>2\*</sup>

<sup>1</sup>송실대학교 교육대학원, <sup>2</sup>송실대학교 일반대학원

##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self-esteem, academic stress, school adjustment and happiness

Kyoung-Hoon Lew<sup>1</sup>, Yu-Sun Son<sup>2\*</sup>

<sup>1</sup>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ngsil University

<sup>2</sup>General Graduate School, Soongsi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아동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아동패널(PSKC: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이하 PSKC)의 11차년도(2018, 초4)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이하 SEM)으로 검증하였으며, SPSS 23.0, AMOS 18.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행복감과 관련된 잠재 변인으로 구성된 본 연구의 구조모형 모델은 구조적으로 적합하였고,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적응, 자아존중감 세 변인 모두가 아동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은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아동 행복감에 영향을 주었으며, 자아존중감 간접효과 검증에서 학교적응과 학업스트레스 중 학업스트레스에서만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학교적응, 자아존중감은 아동 행복감 주요 변인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학교생활의 여러 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은 아동 행복감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확인한 데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 행복감을 위해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학교적응, 자아존중감 등 주요 요인에 대한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 및 시기별 연구가 꾸준히 필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a research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that determines how children's academic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affect their happiness through self-esteem. It was verifi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using data from the 11th year (2018, elementary grade 4) of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and SPSS 23.0, AMOS 18.0 program was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we confirmed that the structural model presented by the children's happiness-related eccentrics was structurally compatible, and the children's academic stress, school adjustment, and self-esteem all affected their happiness. Second, the children's academic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affected their happiness with a focus on self-esteem, and in the indirect effect test, only the children's academic stress affected their happiness through the indirect effect of self-esteem. These results confirm that a child's academic stress, adjustment to school, and self-esteem are the main variables of happiness and that even in the various negative emotional situations faced in school life, high self-esteem is very necessary for the child's happiness. Therefore, it suggests that continuous interest in children and periodical research on major factors including academic stress, school adjustment, and self-esteem are needed for children's happiness.

**Keywords** : Children's Happiness, School Adjustment, Academic Stress, Self-Esteem, Structural Equation Model, Korean Children's Panel

\*Corresponding Author : Yu-Sun Son(Soongsil Univ.)

email: usun7712@gmail.com

Received April 1, 2022

Revised May 19, 2022

Accepted August 3, 2022

Published August 31, 2022

## 1. 서론

현대인의 삶의 질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행복'은 모든 인생 주기에 있어 중요한 화두이자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게 된다. 행복은 인간의 긍정적 상태와 태도를 나타내는 긍정 심리로서 많이 설명되는데 이는 긍정심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목표라 할 수 있는 행복감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1].

한편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의 행복감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아동의 영역별 행복도 수준에서(ISCWB: Children's Worlds the International Survey of Children's Well-Being) 우리나라 아동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16개국 중 14위로,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 SDSN: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에서 매년 발간되는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 하위권을 나타낸다[2]. 이는 우리나라 아동이 매우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적인 지표로서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구체적 노력과 다각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행복의 개념은 공리주의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제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또한 행복은 심리학에서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혹은 긍정적 정서를 포함하는 정서로 정의되고,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구체적 개념이기도 하다[3].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현대의 행복 연구는 경제학, 사회학자들에 의한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측정하는 것에서부터 점차 1990년대 심리학 중심의 개인에 따라 경험되는 행복이 다를 수 있음에 초점을 두게 된다[4,5]. 즉 행복에 대한 연구는 초기 철학적 관점에서 시작되어 현대에서는 심리학적 관점을 비롯한 개인의 여러 경험에 대한 연구들로 이루어진다.

Fredrickson(2001)에 의하면 생후 초기의 행복 경험은 이후 행복을 위한 선행학습으로서 미래 행복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기본태도를 형성하며, 특정 시기의 행복감은 이후 시기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주며, 특히 유아 및 아동기의 행복감은 청소년기를 비롯하여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6]. 즉 행복의 이러한 나선형 효과는 현재 행복이 이후 삶의 자원이 되므로 유아나 아동기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다[4]. 또한 행복은 그 의미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 개인의 유전, 기질 등의 내면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고 개인 경험 속에서 느끼는 만족감 등의 통합적 판단에서 비롯되기도 한다[7].

Coulton, Korbin(2007)에 따르면 아동 행복 예측요인에 있어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요인을 들게 되는데[8], 아동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찾아볼 수 있다. 환경적 요인 선행 연구로는 아동의 행복감과 사회관계[4],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따른 아동 행복감의 영향[9], 교사-아동 관계에서의 아동 행복감 영향[10]의 연구가 있으며, 개인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아동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연구[11,12], 아동 행복감에 대한 척도개발[13] 연구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한 예로 정서요인으로서 높은 행복감은 아동의 인지적 능력향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아동의 학업 수행,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14]. 즉 아동의 심리적 요인 중 긍정심리로서의 행복감이 아동의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인임을 설명한 것이다.

한편 아동의 환경적·심리적 배경이 되는 '학교 적응' 또한 아동의 행복감과 연관되는데, 아동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교육적 환경을 자신 요구에 맞게 변화시키게 되면서 스스로 학교의 모든 상황을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15]. 또한 과거의 학업성공을 학교적응이라고 정의하는 협의 개념에서 최근에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학교 환경적응과 교사와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학업성취와 성장의 전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11]. 즉 학교적응은 단순히 학생 역할, 학업성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보다 넓은 인간관계에 상호적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 행복감과 관련이 깊다.

이처럼 아동의 학교적응과 행복감과 관련된 연구 가운데 아동 행복감과 학업수행능력과 관련된 연구[16], 아동 행복감과 학교 생활적응 관계연구에서[17], 심리요인으로서의 아동 행복감이 아동의 학교적응, 학업수준이나 학교 생활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아동의 행복감이 학교적응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며, 행복감과 마찬가지로 현재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의미는 학생의 부정적·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하여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18,19]. 즉 학교적응은 아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아동의 행복감과 상호 관련성 또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아동에게 있어서 학교생활 적응에 따라 아동의 행복감의 크기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아동 환경 특성들에 대한 학교적응의 행복감 연구는 아동의 발달적, 환경

적 측면과 교육환경이 빠르게 달라지는 시점에서 시기별 다양한 연구를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아동의 행복과 관련된 학교적응 외 주요 요인으로 다루어지는 요인 중 심리적 특성으로 '자아존중감'이 있는데, 이는 자아개념, 자아탄력성과 함께 선행연구 가운데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개인이 자신에 대해 내리는 긍정적 평가로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의미, 느낌, 태도 등을 포괄하는 사회심리 개념이다[20]. 즉 자아존중감은 개인 삶의 전반적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 및 자기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관한 평가적 정서로[3],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지를 판단하며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개인의 행복감이 달라지게 된다[21]. 또한 생애 초기부터 형성되는 자아존중감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형성된 이후 행복감과 마찬가지로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4,22]. 즉 유아나 아동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행복감과 마찬가지로 성인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또 다른 주요 요인이 되며, 자아존중감은 실제 생활과 강한 연계성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의 완충제로 사용하기도 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학교생활을 잘 할 뿐만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을 줄이는 기능을 갖기도 한다[11]. 따라서 개인이 갖게 되는 자아존중감의 크기에 따라 삶에서 느끼게 되는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은 행복과 관련된 매우 주요한 심리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행복감과 학교적응을 비롯하여 자아존중감 관련 국내연구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분석[11],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20], 초등학교생의 자아존중감 변화 궤적에 대한 연구[23], 창의적 가정환경, 자아존중감, 또래 유능성 간의 구조모형 관계연구[24] 등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행복감, 학교적응과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알 수 있다. 즉 관련 연구들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아동 행복감의 주요 변인으로 확인되며 학교생활이나,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감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이 아동 행복감에 정적 요인이라면, 부정적요인으로서 '스트레스'(stress)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압박감으로 정의되며, 개인의 욕구 충족 및 자아기능을 저하시키고 부정적 혹은 긍정적 반응으로 나타낸다[25]. 스트레스 중에서 특별히 학교공

부나 성적으로 인해 그 일이 너무 힘들고 하기가 싫다고 생각하여 경험하게 되는 정신적 부담과 근심, 긴장, 우울, 공포, 초조함 등과 같은 심리상태의 편하지 못한 상태를 학업스트레스라고 한다[26].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곳은 학교이고, 그 중 학업관련 요인은 스트레스를 더욱 심화시키기도 한다[27]. 학업스트레스는 맥락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며[28], 심리적 특성요인으로서 스트레스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이나 학업성취과정에서 학교적응이나 자아탄력성 혹은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나타내기도 한다[29-31]. 이는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간 관계 연구[25], 영재와 일반학생의 학업스트레스 관련 연구 [26-28],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연구 [31]에서 스트레스의 부정 상관을 나타낸다.

즉 아동 행복감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개인 내적 특성들로 설명될 수 있는 심리적·발달적 요인과 아동의 가정 및 환경을 둘러싼 경제적·문화적 요소 등의 환경적 요인들이 아동 행복감에 주요한 정적·부적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주관적 심리적 요인 뿐 아니라, 아동의 발달 및 주변의 환경적 특성이 아동의 행복감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아동 행복감을 위한 관련 변인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복감 변인 가운데 자아 관련 심리 요인을 나타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환경 요인을 나타내는 아동의 학교적응에서 아동 행복감 간의 관련성을 구조모형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일부 확인된 바와 같이 아동 행복감이 관련 변인들과 어떠한 영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 시사점을 찾는 것에 의미가 있다. 특히 학업스트레스가 가중되기 시작하는 초등 고학년 시점의 4 학년을 기준으로 아동 행복감과의 관련성을 확인해 보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겠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의 모형은 Fig. 1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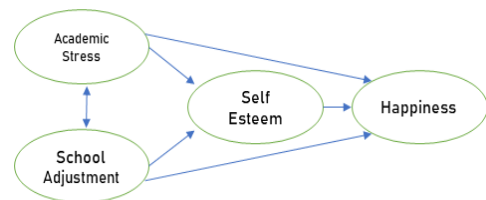


Fig. 1. Model

1. 아동의 스트레스, 학교적응,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2. 아동의 스트레스, 학교적응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 수집한 한국아동패널(PSKC)의 종단 데이터 11차년도(2018) 자료를 사용하였다[32].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부터 신생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성장 발달과정을 추적 조사하여 각 시기별 발달특성과 양육실태 및 그 밖의 육아 정책 영향에 관한 종단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가중되기 시작하는 고학년 시점의 초등학교 4학년(2018년, 11차년도)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018년도 11차 자료 총 1,428명 중 행복감을 비롯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변인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결측값을 제외한 (대/ 중/ 소도시 : 289/ 366/ 52, 남아 / 여아 : 364/ 343) 총 707명의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2.2 측정도구

#### 2.2.1 행복감

MCS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 2008)의 아동 설문지를 번역하여 사용한 것으로 Likert 4점 척도의 총 6문항을 이루어져 있다 [33]. 4점 척도에 대한 아동의 이해도를 돕기 위하여 표정 그림을 추가로 제시하였으며,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1점) ~ ‘매우 행복해요(5점)’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의 각 영역(학교공부, 외모, 가족, 친구, 학교, 삶)에 대한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예, 1. 학교 공부를 생각하면 어떠니?).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  $\alpha$  아동 행복감 신뢰도계수는 .786으로 산출되었다.

#### 2.2.2 자아존중감

MCS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 2012)에서 Rosenberg, M.(1965)의 자아존중감(RSE: Rosenberg’s Self-Esteem Scale) 10 문항 도구를 아동의 연령에 맞게 5문항으로 축소한 것을 사용하였으며[34,35],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

다(예, 1. 나는 자신에 만족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자아존중감 Chronbach  $\alpha$  신뢰도 계수는 .827로 산출되었다.

#### 2.2.3 학업 스트레스

한국청소년패널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초4패널(2004-2008), 중2패널(2003-2008)에서 사용된 김준호, 이동원(1996)연구의 학업스트레스 검사도구를 사용하였으며[36, 총 3문항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예, 1.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니?). ‘그런적 없다(1점) ~ ‘항상 그렇다(5점)’ 각 문항별 스트레스의 정도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스트레스 Chronbach  $\alpha$  신뢰도계수는 .804로 산출되었다.

#### 2.2.4 학교 적응

지성애, 정대현(2006)의 총 35문항으로 구성된 학교적응 척도(School adjustment Inventory)를 사용하였으며[37], 4개 하위 영역과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 영역의 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학교생활적응(11문항)은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적응,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다 심해진 질서 및 규칙에 대한 적응, 정해진 일과에 대한 적응, 교사의 지시나 요구에 대한 적응 등을 나타내며, 학업수행적응(11문항)은 의사표현이나 활동의 의욕성, 수업시간에서의 활동과 모둠별 활동,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과제나 준비물의 준비를 잘 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래적응(8문항) 친구들과의 놀이에 관한 문항, 갈등 해결의 형태, 또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등을 나타내고, 교사적응(5문항)은 선생님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함, 선생님과 자유롭게 이야기함, 선생님께 인사를 잘함, 선생님께 도움을 잘 청함 등을 나타낸다. 학교생활 1, 11번 문항과 교사적응 31문항은 역코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학교적응 Chronbach  $\alpha$  신뢰도계수는 (학교생활 / 학업수행 / 또래 / 교사 : .952 / .947 / .932 / .863) 학교적응 전체 .878로 산출되었다.

###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복감과 관련된 변인(스트레스, 학교적응)의 영향과 자아존중감을 통해 아동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구경방정식 모형

(SEM)을 설정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으로 SPSS 23.0, AMOS 18.0을 활용하였으며, 자료의 다변량 정상성(Multivariate normal) 충족확인을 위해 기술통계 분석에서 정규분포 간주 될 수 있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 각 2와 7미만 기준을 확인하였다[38]. 모수 추정을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간접효과 검증에 대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방식을 사용하였다. 반복 추정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정횟수는 n=2,000으로 설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TLI, CFI, RMSEA의 수용기준으로 확인하고 TLI, CFI, RMSEA 지수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각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아동의 행복감은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학교적응과 상관이 있으며(-.470 ~ .920,  $p < .01 \sim p < .001$ ),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은 행복감과 정적상관을, 스트레스는 모든 요인과 부적상관을 나타낸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는 학교적응의 일부 하위요인과 상관을 나타

내지 않았으나, 학교적응(전체)와는 상관을 나타냈으므로, 아동 행복감은 전체변인과의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술통계 값의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 절대값이 각 2, 7을 넘지 않았으므로, 정상성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38].

#### 3.2 구조모형 검증

##### 3.2.1 구조모형의 적합도

아동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분석에서, 모형의 하위변인 e4와 e7, e9와 e10, e13과 e16, e14와 e15, e4와 e5, e8과 d1, e13과 d2, e10과 e11, e11과 e12의 총 9개의 상관을 순차 설정하였고, 행복감2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상관이 높아 제외되었다. 수정결과  $\chi^2$ 은 수용기준  $p > .05$ 로 적합하며, TLI, CFI, RMSEA값을 기준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TLI, CFI는 모두 .9이상으로, RMSEA는 .075로 적합한 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의 초기 적합도와 수정된 적합도 결과 더 높은 최종 수정모형을 본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1. Measurement model variable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	6	7	8
1	1							
2	.688***	1						
3	-.470***	-.374***	1					
4	.205***	.072	-.184***	1				
5	.250***	.156***	-.146***	.675***	1			
6	.227***	.124**	-.154***	.704***	.790***	1		
7	.131***	.066	-.016	.410***	.670***	.598***	1	
8	.240***	.124**	-.150***	.825***	.920***	.906***	.768***	1
Average	3.33	3.52	2.03	4.28	4.02	4.08	4.08	4.11
Standard deviation	.47	.46	.86	.82	.83	.78	.71	.67
Skewness	-.808	-1.285	.722	-1.374	-.996	-1.058	-.793	-1.125
Kurtosis	1.21	2.233	.233	1.391	.817	1.549	.659	1.735

1.Happiness 2.Self esteem 3.Academic stress 4.Adjustment to school (school life) 5.Adjustment to school (academic performance) 6.Adjustment to school (peer) 7.Adjustment to school (teacher) 8.Adjustment to school (Total)  
\*\*\* $p < .001$ , \*\* $p < .01$

Table 2. Model fit index

fit	$\chi^2$	df	$\chi^2/df$	TLI	CFI	RMSEA
early model	666.075	129	5.163	.891	.908	.077
modified model	523.284	106	4.937	.902	.924	.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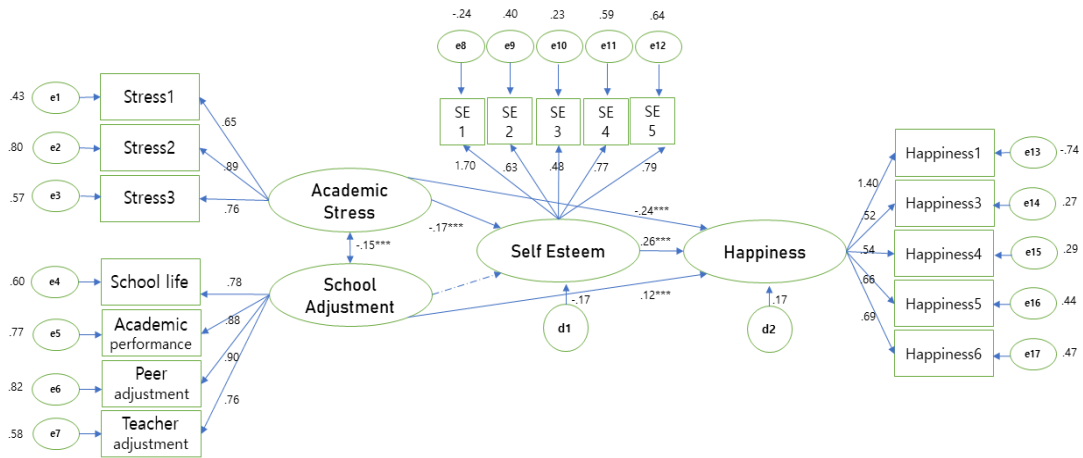


Fig. 2. Model path coefficient verification result

3.2.2 구조모형의 경로 및 유의도 검증

아동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최종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다음 Fig. 2, Table 3과 같다.

Table 3. Model path coefficient

path	B	$\beta$	S.E.	C.R.
Academic stress → Happiness	-.416	-.235	.047	-8.77***
School adjustment → Happiness	.202	.117	.040	5.04***
Self esteem → Happiness	.282	.261	.027	10.31***
Academic stress → Self esteem	-.283	-.172	.039	-7.18***
School adjustment → Self esteem	-.001	-	.035	-.022

\*\*\* $p < .001$

잠재변수 간 경로계수 검증결과, 학교적응에서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에서 자아존중감, 스트레스에서 행복감, 학교적응에서 행복감, 자아존중감에서 행복감 경로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즉 구조모형 그림과 경로계수 결과, 학교적응에서 자아존중감으로 경로에서만 유의하지 않았으며( $p > .05$ ), 다른 모든 경로에서는 유의하였다( $\beta = -.235 \sim .261, p < .001$ ). 학교적응( $\beta = .117, p < .001$ )과 자아존중감( $\beta = .261, p < .001$ )은 아동 행복감에 정적영향을, 스트레스( $\beta = -.235, p < .001$ )은 아동 행복감에 부적영향을 나타내며, 학교적응, 스트

레스, 자아존중감의 세 개 변인 중 자아존중감이 아동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낸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대해 아동 스트레스는 부적 영향을 주고( $\beta = -.172, p < .001$ ), 학교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 .05$ ).

즉 스트레스가 아동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준 것과 같이 아동 자아존중감을 낮추게 되고, 또한 학교적응은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는 반면 자아존중감에서는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아동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을 종합해보면, 스트레스는 아동 스스로 좋아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과 삶의 전반적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부정적 요인이 되며, 교사나 또래와의 관계 및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은 스스로를 좋아하거나 만족하는 것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아동 삶 전반적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행복감을 갖는 것에는 도움

Table 4. Model effect verification

variable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beta$	$\beta$	$\beta$
Academic stress	→ Happiness	-.431***	-.236***	-.195***
	→ School adjustment	.207***	.171***	.037***
Self esteem	→ Happiness	.533***	.533***	-
Academic stress	→ Self esteem	-.365***	-.365***	-
	→ School adjustment	.069*	.069*	-

\*\*\* $p < .001, *p < .05$

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낮추고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게 하며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은 아동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다.

Table 4의 구조모형의 효과 검증에서, '스트레스 → 행복감'( $\beta = -.431, p < .001$ ), '학교적응 → 행복감'( $\beta = .207, p < .001$ )의 총 효과를 나타냈으며, 직접 효과의 크기는 '스트레스 → 행복감'( $\beta = -.236, p < .001$ ), '학교적응 → 행복감'( $\beta = .171, p < .001$ )로 나타났다. 간접 효과로는 '스트레스 → 행복감'( $\beta = -.195, p < .001$ ), '학교적응 → 행복감'( $\beta = .037, p < .001$ )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n=2,000$ ), 부트스트래핑 유의도 검정 결과, '스트레스 → 자아존중감 → 행복감'에서만( $\beta = -.192, p < .01$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가 '스트레스 → 자아존중감 → 행복감'에서만 있음을 나타내며, 아동이 학교현장이나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에서  $\beta = -.192$ 의 부적효과가 감소 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한다. 즉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아동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이 행복감을 갖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업 및 부정정서의 스트레스 요인을 낮추며, 자기 만족감을 높여 자아존중감을 갖도록 아동 주변의 여러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학업스트레스, 학교적응과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또한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아동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아동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연구로서 의미가 있겠으며 특히 학업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초 4학년 시점의 한국아동패널 자료(2018년, 11차)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아동 행복감 관련 변인들로 구성된 본 연구의 구조모형 모델이 구조방정식 모형(SEM) 검증결과 적합함이 확인되었으며, 아동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자아존중감 세 변인 모두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분석 결과 아동의 스트레스는 학교

적응, 자아존중감, 행복감 모든 변인에서 부적인 영향을, 아동의 학교적응(학교생활, 학업수행, 또래 및 교사관계)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행복감에만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스트레스가 아동 학교적응,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을 낮추게 되며, 아동 학교적응은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이 없는 반면 행복감에는 영향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이 학업수행, 학교생활 등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은 아동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을 높이는 것에 영향이 없는 반면 행복감은 높일 수 있음을 말한다. 비슷한 변인연구에서는 초등학생과 청소년의 학교수업적응이 자아존중감과 상관이 있음을 나타내고, 학교 성적 및 숙제나 시험 때문에 받게 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를 소중하지 않게 느낄 수 있게 되어 이로 인해 행복감이 낮아진다[39,40]. 한편 아동의 행복감과 학교생활적응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17],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이 아동의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은[40], 학교생활의 적응이 아동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본 연구 결과와도 동일하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 관계연구에서[41], 아동의 스트레스는 학교생활 적응과 적응 유연성에 부적 영향이 있는 것과도 유사하다. 이처럼 스스로를 좋아하고 자신에게 좋은 면이 많으며 무슨 일이든 잘 할 수 있는 생각과 스스로를 소중하다고 여기는 아동은 전반적으로 행복감을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는 연구들과 같은 결과이다[11,42]. 즉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를 포함한 학교생활이나 학업수행의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학업성적, 숙제 및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에 대한 만족하는 등 스스로를 좋아할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둘 째, 아동의 학교적응과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아동 행복감에 정적·부적인 영향을 주며, 특히 자아존중감은 아동 스트레스의 부적인 영향을 낮추고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부적 효과가 감소 되며, 특히 아동 행복감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 자아존중감의 크기에 따라 행복감이 더욱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아동의 학업 관련된 스트레스는 아동 행복감을 낮추게 되지만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이를 감소시켜 행복감을 갖도록 도와주게 되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는 큰 영향이 없

나 행복감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낸다. 이는 스트레스가 아동의 학교적응이나 학업성취에 부적 영향을 주고[30,31], 자아 탄력성과 같은 긍정 심리적 요인이 있을 때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유사하다[29].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상관관계 메타분석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참조해 볼 수 있다[39]. 이러한 선행연구 두 변인의 높은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아동의 학교적응은 자아존중감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아동 행복감에만 영향을 주었으며, 자아존중감 간접효과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유아부터 청소년기의 발달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연구한 Harter(2006)는 아동이 타인의 소통 속 자신을 지각하고 가치를 판단하며,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이나 기대와 비교하며 자신 모습을 판단하게 된다고 한다[43]. 또한 Young 와 Mroczek(2003)는 아동 성차가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남아보다 여아가 낮은 자기평가를 보고하므로, 성별이 구분되지 않은 본 연구의 아동의 학교적응에서 자아존중감의 차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44]. 즉 학교적응을 잘하고 행복감을 갖는 아동의 경우 행복감에 대한 학교적응의 수준보다 비교나 성차의 특성 등으로 인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비교적 낮을 수 있으며, 학교적응이 힘들고 행복감을 덜 갖는 아동의 경우 낮은 행복감에 대한 학교적응의 수준보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동이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 적응, 학업수행이나 학교생활에서 잘 적응하는 것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감을 높여 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시험이나 숙제 등의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감이 낮아지게 되더라도, 스스로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만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높은 자아존중감은 이를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즉 심리적 만족의 긍정 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부정정서를 적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업과 학교생활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사 및 아동 주변의 노력이 매우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 학교생활의 여러 스트레스 및 부정정서 상황에서도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의 긍정 정서를 높일 수 있는 자아존중감의 형성이 가장 필요하며 이는 아동 행복감의 가장 큰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의 또래 관계, 교사와

의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사를 어려워하지 않고 편하고 즐겁게 질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 무엇보다 아동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주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크기만큼 아동의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교육현장에서는 항상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한국아동패널에서 조사된 아동 스트레스 관련 설문은 주로 학업스트레스 문항으로 이루어져 내용이 다소 제한적이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인 학업스트레스가 심화 되기 시작하는 초등 4학년 시점으로만 아동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다소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 중인 고학년 이후의 조사 자료를 통해 향후 학업 및 여러 스트레스가 본격 가증되는 초등 4학년 이후의 중등학교 시기까지 성차 및 발달에 따른 아동 행복감에 대한 학교급의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References

- [1] M. E. P. Seligman, M. Csikszentmihalyi,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Reply. *American Psychologist*, Vol.56, No.1, pp.89-90, 2001.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56.1.89>
- [2] Save the Children, Korean Children's Quality of Life: Achievements in the Past 10 Years and Tasks for the Next 10 Years Symposium Resources, Save the Children, Korea, pp.36-38. 2021. Available From: <https://www.sc.or.kr/news/reportView.do?NO=71185> (accessed Dec. 08, 2021)
- [3] S. H. Kim, S. Y. Woo, "Examin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Happiness and the Happiness and Job Satisfaction of Working Mothers", *The Women's Studies*, Vol.108, No.1, pp.253-280, March 2021.
- [4] E. S. Moon, M. H. Mo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arent-child interaction, teacher-child interaction, peer play interaction, early childhood happiness and childhood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41, No.6, pp.261-283, Dec. 2021. DOI: <http://dx.doi.org/10.18023/kiece.2021.41.6.011>
- [5] N. R. Choi, H. J. Cho, "The effect of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steem on their happines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4, No.10, pp.131-153, Oct. 2014.
- [6] B. L. Fredrickson,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Vol.56,



- No.3, pp.218-226, 2001.
- [7] J. I. Kim,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s Feeling of Happiness, Mothers Feeling of Happiness, Parenting Behaviors, and the Elements of Familial Environment",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109, No.3, pp.53-77, March 2018. DOI: <http://dx.doi.org/10.37918/kce.2018.03.109.53>
- [8] C. J. Coulton, J. E. Korbin, "Indicators of child well-being through a neighborhood le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84, No.3, pp.349-361, May 2007. DOI: <https://doi.org/10.1007/s11205-007-9119-1>
- [9] J. H. Choi, J. W. Kim,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respecting the rights of a mother on the happiness of a child",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25, No.4, pp.511-530, Dec. 2021.
- [10] S. h. Lee, Y. h. Kim, "The effect of teacher-child relationship on children's euphoria: Parameters of academic performance and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9, No.3, pp.159-177, Aug. 2020.
- [11] H. J. Suh, S. H. Rho,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steem, Subjective happiness,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10, No.4, pp.55-70, Dec. 2018.
- [12] S. K. Moon, M. Y. Lee,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Happiness of Childre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Vol.6, No.3, pp.19-33, Sep. 2008.
- [13] H. Y. Choi, H. Y. Shin, M. S. Choi, S. Y. Cho, "Development of a Happiness Scale for School-aged Korean Children(HSSKC)",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27, No.5, pp.1-11, 2009.
- [14] C. J. Park, H. W. Chung,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of elementary students' happiness, school adjustment, and math performance abil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20, pp.373-386, Oct. 2021.
- [15] A. Y. Kim, S. I. Kim, "Comparisons of Psychological Factors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between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and from General Familie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5, No.4, pp.853-873, Dec. 2011.
- [16] Y. A. Jung, J. H. Ryu, "Analysis on students' self-esteem, happiness, school achievement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s according to the parents' types of education feve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9, No.20, pp.1297-1317, Oct. 2019.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20.1297>
- [17] J. E. Jung, *The Influence of Family Strength and Subjective Well-being on School Life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ongju, Korea, pp.39-42, 2016.
- [18] H. J. Baek, "The effects of self control, self reliance, and attachment to teacher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9, No.2, pp.357-373, April 2007.
- [19] Y. S. Son,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unseling Experience and School adjustment and Self-directed Learning*, Master's thesis, Soongsi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Korea, pp.61-67, 2020.
- [20] E. J. Kim, S. J. Lee, "The Influence of Young Children's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on Their Happines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15, No.4, pp.281-300, Dec. 2015.
- [21] A. Furnham, H. Cheng, "Lay theories of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1, No.2, pp.227-246, June 2000. DOI: <https://doi.org/10.1023/A:1010027611587>
- [22] J. M. Kim, S. Y. Hong, "Examining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chool Readiness, Academic Achievement,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Inha Educational Research*, Vol.25, No.3, pp.507-525, April 2019. DOI: <http://dx.doi.org/10.24159/joec.2019.25.3.507>
- [23] H. S. Choi, S. Y. Lee, "Classification of Latent Class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 Self-Esteem and Their Predictors: Focused on Changes in Happines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24, pp.411-434, Dec. 2020.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24.411>
- [24] K. H. Lew, S. M. Kang,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Variables on Preschooler's Creative Environment, Self-Esteem and Peer Competence", *The Journal of creativity education*, Vol.20, No.1, pp.419-436, March 2013.
- [25] M. R. Chung, Y. S. Jang, S. G. Kim,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Self-Esteem and Learning Motivation of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0, No.2, pp.221-234, April 2011.
- [26] J. H. Ahn, M. H. Yoo, "Comparison of Academic Stress, Stress Coping and Academic Burnout between Elementary Gifted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and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Vol.24, No.2, pp.169-189, April 2014. DOI: <http://dx.doi.org/10.9722/JGTE.2014.24.2.169>
- [27] H. S. Min, Y. S. Yang, "A Comparison of Perfectionism, Academic stress and Learning flow Between Gifted and Non-gifted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Vol.22, No.1, pp.157-171, April 2012.
- [28] K. J. Kang,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